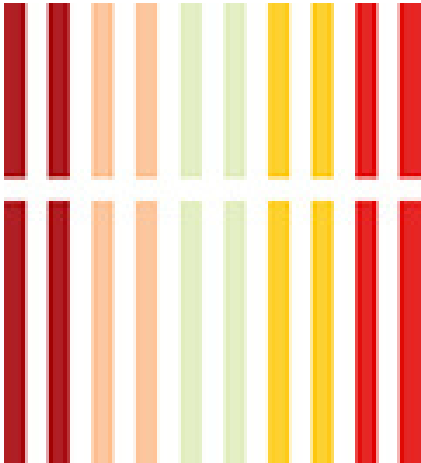


Nr. 558 (2025- 07-08)

순례



편집부에서 드리는 글

순례

편집부

순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 걸으며 하느님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고요한 기도, 땀 어린 회개, 낯선 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특히 7월과 8월은 순례가 더욱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무더운 계절이지만, 학교 방학과 직장인의 휴가가 겹치며 많은 이들이 시간을 내어 성지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성모님의 발자취가 남은 곳, 순교 성인의 숨결이 깃든 땅, 그 거룩한 장소를 밟으며 신앙의 뿌리를 되새기고 삶의 방향을 다시 하느님께로 돌리는 시간이 됩니다.

여름의 순례는 단지 몸이 걷는 여정이 아니라 마음이 회복되고,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길입니다. 이 계절, 우리 모두 삶의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주님을 향한 조용한 발걸음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1:15-20

그리스도 예수님은 15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만이이십니다.

16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17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18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만이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19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20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5월 16일 성모회Tuntenhausen 성지순례 1



5월 16일 성모회 Tuntenhausen 성지순례 2

순례

편집부에서 드리는 글

-

사제와 함께, 부제와 함께 / 허광철 요셉 신부님, 김정남 프란치스코 부제님

-

살아가는 이야기 / 전영민 수산나

-

결혼 소감 / 임석균 사도요한, 정은영 보나

-

유아세례 소감 / 이이안 사도요한, 오우진 니콜라오



2025년 빛과 소금은 아래와 같은 주제로 발행됩니다.

1,2월 초심 (Neues Herz)

3,4월 십자가 (Das Kreuz)

5,6월 어머니 (Mutter)

7,8월 순례 (Wahlfahrt)

9,10월 일치 (Einheit)

11,12월 탄생 (Geburt)

사제와 함께, 부제와 함께

허광철 요셉 신부님, 김정남 프란치스코 부제님

이번 호 사제와 함께는 뷔르츠부르크 교구 종신부제 김정남 프란치스코 부제님의 글과 함께 합니다. 부제님은 한국에서 독일로 입양되어 신앙이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 부제직의 성소를 받고 현재 뷔르츠부르크 교구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아래 글은 지역 신문에 지난 6월 22일에 기고한 것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부제직의 소명과 한인 공동체와의 만남을 간결하고 감동적으로 표현해 주신 부제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제님의 글을 처음 읽으며, 이번 호 빛과 소금의 주저신 '순례를 떠들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하느님에게로 부터 와서 다시 하느님에게로 돌아가는 하나의 순례가 아닌가. 부제님은 그 순례의 길에서 하느님을 끊임없이 만나고 또 사랑으로 한인들을 만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언제나 기쁜 얼굴로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부제님께 감사드리며, 부제님의 성소의 길, 순례의 길에 참 기쁨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역시 하느님에게서 허락하신 이 인생이라는 순례의 길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더 진솔한 사랑으로 이웃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분당신부 허광철 요셉)

“믿음과 삶은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Diakon Kim J.N. Sell)

교회 부제(Diakon)로서 제가 맡은 여러 임무 중 하나는 뷔르츠부르크에 있는 한인 가톨릭 공동체를 돌보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계로서 동포들을 돌보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저는 원어민 사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곧 독일생활 50년이 되어가지만, (한국에서 입양이 된 후) 독일 생활 초기에 저는 모국어를 알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소년 김씨는 불행히

도 독일어를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어머니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즉시 저는 어머니께 한국어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는 알아듣지 못하실 테니까요. 한국에서 금방 배운 몇 마디 독일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6주 후, 제 독일어 실력이 너무 좋아져서 어머니는 제가 다시 한국어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 몇 마디 한국어를 가르쳐 드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어린 김씨는 한국어를 단 한 마디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모국어를 잊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모국어를 다시 배우지 못했습니다. 제 버킷리스트에 있는 목표입니다. 한국어로 다섯 단어 이상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남 프란치스코 부제님

제가 하는 일은 (뵤르츠부르크) 한인 공동체를 돌보는 일인데, 그들과 정기적으로 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한국어로 미사를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그동안 배운 주님의 기도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동포들에게는 매달 열리는 만남과 모국어로 거행되는 미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이 만남을 거의 놓치지 않습니다.

미사 후에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편안한 친교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날, 기여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나 한국 음식을 준비하여 가져오시면 됩니다. 한국 음식은 다양한 반찬으로 이루어지기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모두가 준비하고 제공하는 음식은 대부분 잔치음식이 됩니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미사를 드리고, 미사가 끝난 후의 모임도 같은 열정으로, 몸과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모임 이후의 기쁨과 슬픔을 나눕니다. 일, 학업,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특히 한국을 비롯한 세계 문제에 대한 생각을 나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달 셋째 주 토요일을 기쁨과 나눔을 경험하기 위해 비워둡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라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일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사목자로서 봉사를 시작했을 때 반복해서 말했던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활동에서 삶과 신앙은 서로에게 꼭 맞는 한 쌍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나 일상생활에서 신앙이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공동체와 함께 하는 이 임무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총명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믿음과 삶은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축복된 시간을 기원합니다. 🇰🇷🇰🇷🇰🇷



6월 19일 성체성혈대축일 야외 미사 1



6월 19일 성체성혈대축일 야외 미사 2



6월 19일 성체성혈대축일 야외 미사 3



6월 19일 성체성혈대축일 야외 미사 4

과오는 누구에게나

전영민 수산나

'주님, 저에게 선하고 맑은것을 알아보게 하소서. 행복하게 살며 그 행복을 이웃과 나누도록 저에게 유머를 이해하는 센스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기도문을 접하다가 '이웃과 행복을 나누라'는 대목에서 한 가수의 노래가사에 멈추게 되었다.

Udo Jürgens (1934 -2014) 독일에서 활동하던 아주 유명한 가수였다. 그가 부른 모든 곡은 대부분 자신이 작곡하고 작사 했다고 한다. 그 많은 히트곡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60년대에 그랑프리 상을 획득한 "메르치 쉐리" 또한 그가 작곡 작사한 것이라고 한다. 지금도 컷가에서 맴도는 듯한 이 곡은 그 당시 라디오 자정 프로그램에 시그널 음악으로 올려 퍼지면 한 여름 밤, 청량제 같은 시원상쾌함을 선사 하면서 뻗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감미로운 이 곡을 듣기위해 자정까지 기다렸던 기억이 생생하다. 사실이 너무 길어진것 같은데, 이상 거두절미 하고...

그의 유명한 히트곡 중에 'Ehrenwertes Haus' - 명예로운 주택 - 이라는 노래인데 그 가사가 나를 잡아끄는 것이다. 간단히 그 텍스트를 설명 한다면 이렇다.

어느 고상한 주택가에 새 들어 사는 부부가 있었는데 정식 결혼한 사이가 아니고 내연관계 인것이 알려진 것이다. 어느날, 그들의 편지함 속에서 이 집에서 나가달라는 촉구편지를 발견한다. 행실이 바른 사람들 만 사는 주택가에서 그들 내연자들 때문에 불명예스럽다는 것이 그 이유인 것이다.

남자는 소위 건실하다고 자칭하는, 축구장에 서명한 이들의 명단을 하나씩 자세히 관찰해 본다. 먼저, 한층 아래 살고 있는 남자는 언뜻하면 고성을 지르고 어린 딸을 구타한다. 나이가 좀 든 옆집에 홀로 사는 여자는 거짓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면서 불화의 불씨를 만들고 다닌다. 회색양복을 멋들어지게 차

리고 다니면서 젊고 예쁜 여자들과 희롱을 즐기는 파렴치 돈 후안이 살고 있는가하면 모락 술책을 써서 불법적으로 그 주택에 입주한 사실도 드러난 여자도 있었다 등등...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대들보는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타인의 눈속에 들어있는 먼지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방해를 받는다. 그 작은 먼지를 꼭 지적해 주고 싶어하는 고약한 성미인 것이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간음하다 잡힌 여자의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현행범으로 범행장소에서 잡혀온 것이다. 요즘 말로 빼박 인것이다.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죄를 지은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 당시의 형법대로 돌로쳐서 처형하길 재촉한다. 예수님께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는 말씀으로 그곳에 모인 모두를 놀라게 만든다. 그리곤 무관심 하신듯, 땅 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계셨다고 성경은 전한다. 그 사이, 득달같이 몰아치며 곧 돌로 치라는 판정이 날 줄로 생각했던 이들이 나이든 사람부터 차례로 모두 그곳을 떠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선 고개를 들고 주위를 살피시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인아, 너를 단죄 하려던 그 자들이 아무도 없느냐.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가거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 를 짓지 마라.” 하시는 것이다. “지난 일은 아무리 꾸짖는다 해도 망쳐버린 길이었지만 이제 가는길은 바른 길이다.”라고 말씀 하시고 싶은 것이다. 주님의 탁월 하시고 여유 만만한 행동이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는 것이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결점이 있다.

예컨데, 타인에게 돌을 던질만큼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결점이 있다. 예컨데, 타인에게 돌을 던질만큼 자신은 깨끗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독일 속담에 Irren ist menschlich - 과오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 '너 자신을 알라.' 2500년전에 살았던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한 것은 그 때나 지금이나 인간사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일이 건실한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내 자신을 안다는것은 나의 잘못을 알고 결점을 알게 되면 타인을 비방하는 대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 길은 평화로이 공존하는 삶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일 뿐 아니라 위험한 사고 방식인 것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다.

먼저 자기집 앞 부터 깨끗이 해놓고 남의 가정상황을 평가 하라는 독일 속담은 자신을 돌아보라는 좋은 경고의 말이다. 그 노래의 종장에, 겉으론 고상한척 하지만 조금만 들춰봐도 허위가 넘치는 추악한 주택가의 본질을 알고 그들 부부는 그 곳을 떠난다고 노래한다. 말 하자면 그 주택가 사람들의 위선적인 삶이 오히려 그들 부부에게 걸 맞지 않다는걸 보여준 셈이다. 🏠



6월 22일 첫영성체 권혜민 에스텔, 권혜진 대건 안드레아, 임지민 아네스, 임경민 에스텔



6월 22일 첫영성체

결혼 소감

결혼을 하고나서

임석균 사도요한, 정은영 보나

원헨에서 대학 선후배로 처음 만나 성당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그렇게 3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하며 서로의 신앙과 삶을 나누어 왔습니다.

성당에서 함께 기도하고, 성가대에서 봉사하며 보냈던 시간들은 저희에게 참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여정을 이어, 지난 5월 3일, 한국 부산 가정성당에서 혼인성사를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축복 안에서 결혼식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고, 지금은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른 길을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혼인성사를 준비하면서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떤 날이 오더라도 서로를 믿고, 하느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하느님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석균 사도요한, 정은영 보나



6월 29일 레겐스부르크 성지순례 미사 1



6월 29일 레겐스부르크 성지순례 미사 2

이이안 사도요한

이동현 도미니코, 정인영 세실리아

지난 5월 4일 주일은 저희 가족에게 참으로 뜻깊고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부부가 된 지 1년 여가 지나 주님 앞에서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기를 약속드리는 혼배성사를 올리게 되었고, 그 은총 안에서 저희 아들 이이안도 사도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약속하는 세례식을 함께 가졌습니다.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만나 함께 걸어가기로 한 이곳 뮌헨 한인 성당에서 혼배성사와 아이의 세례식을 올리는 일은, 저희 부부가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며 가져왔던 바람이었습니다.

혼배성사를 드리는 동안, 저희가 처음 만났던 날부터 함께하기로 마음을 모았던 순간들, 그리고 이이안이라는 축복을 처음 마주했던 기억들, 또 그 사이 성당 안에서 신부님과 교우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많은 시간들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쌓여 이렇게 주님의 축복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음에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비록 서로 다른 자리에서 신앙의 길을 시작했지만 저희 부부가 주님과 함께 걸어온 것처럼, 우리 아들 사도 요한도 앞으로의 삶에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부모로서 그 길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다짐합니다.

저희 가족에게 따뜻한 축복을 보내주신 뮌헨 한인 공동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늘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도미니코, 세실리아, 그리고 사도 요한 드림 





5월 4일 이이안 사도요한 유아세례 2



5월 4일 이이안 사도요한 유아세례 3

유아세례 소감

오우진 니콜라오

오승용 야고보, 김아영 베로니카

하느님의 보살핌과 사랑으로 우진이가 2024년도 12월 06일 세상과의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독일에서 Nikolaustag이라 새삼 놀라기도 했으며 세례명을 니콜라오라고 미리 정해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유아 세례식 내내 우진이가 하느님의 자녀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기를 기원하였으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느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길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부족한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우진의 세례식을 많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앞으로 성가정을 이루며 살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6월 1일 오우진 니콜라오 유아세례 1



6월 1일 오우진 니콜라오 유아세례 2



6월 1일 오우진 니콜라오 유아세례 3

주일 미사 안내

뮌헨 공동체

매주일 15시

Allerheiligenkirche am Kreuz

(Kreuzkirche)

Kreuzstr. 10, 80331 München

에를랑겐/뉘른베르크 공동체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6시

KHG Erlangen 경당

Sieboldstr. 1, 91052 Erlangen

뵐름부르크 공동체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KHG Würzburg 경당

Hofstallstr. 4, 97070 Würzburg

레겐스부르크 공동체

-매월 넷째 주 토요일 15시

Weiherweg 6A, 93051 Regensburg

공동체 사무실 안내

화, 목, 금 : 10:00 - 15:00

방문 시 카톡이나 전화로 먼저 연락
바랍니다.

Dachauerstr. 23 / 3. Stock

80335 München

Tel. 089 26 05 729

Fax. 089 26 01 83 29

Koreanischsprachige-Mission.

Muenchen@eomuc.de



빛과 소금 여러분의 좋은 글을 기다립니다

licht.salz@hotmail.com

빛과 소금 편집부

김서현 로렌

김진영 암브로시오

김동년 미카엘

박석정 가브리엘라

백상현 미카엘

백효현 로사

유재민 노엘